

Gerontion 論

李 泰 柱*

I

Eric Thompson 은, 그의 著書 T. S. Eliot—*The Metaphysical Perspective* (1963)에서 F. H. Bradley 와 Eliot 의 關係를 究明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엘리엇의 詩人으로서의 出發은 哲學的인 立場에서였고, 엘리엇의 哲學研究는 궁극적으로 詩人이 되어야 할 必要性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엘리엇의 독특한 업적은 不信의 時代에 있어서 哲學的 詩人이 되었다 하는데 있다.」

엘리엇의 哲學的 根據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바드大學校에 提出한 그의 論文인 *Experience and the Objects of Knowledge in the Philosophy of F.H. Bradley* (1916)를 考察해 봐야 한다. 이 論文이 完成된 이듬해인 1917년에는 詩集 *Prufrock and Other Observations* 가 刊行되고, 1919년에는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가 發表되었으며, 같은 해인 1919년에 *Gerontion* 이 發表되었다. 1920년에는 *Poems* 가 刊行되고, 1922년에는 *The Waste Land* 가 發表되었다.

나는 그의 哲學이 初期의 詩 特히 *Gerontion* 과 어떤 關聯性을 가지며, 어떤 意味를 갖는 것인지 알아 보고 싶다. 그리고는 한결음 더 나가 詩人으로서의 엘리엇의 課題와 方法이 빛이냐 하는 것을 밝히고 싶다.

* 英語英文學科 助教授

II

Bradley의 論文에 대해서 Eric Thompson은 다음과 같이 이를 分類 檢討하고 있다. ① 第1章인 “Of Our Knowledge of Immediate Experience”는 焦點을 現實 즉 엘리엇의 經驗에 두고 있다고 보며, 第2章인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Ideal”은 理想 즉 엘리엇의 知識에 焦點이 있다고 보고, 第3章인 “The Psychologist’s Treatment of Knowledge”는 外觀 즉 엘리엇의 物體에 焦點이 있다고 본다. 第4章과 第5章인 “The Epistemologist’s Treatment of Knowledge”는 外觀의 여러 型 즉, 物體의 타인을 檢討하고 있다고 본다. 第6章 “Solipsism”은 現實과 理想의 교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第7章인 “The Conclusion”는 形而上學的 知識에 關한 것이라고 본다.

第1章에서 論議되고 있는 “Immediate Experience”를 詳述해 보고자 한다.

Immediate experience를 꼬집어 이렇다 말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어떤 事物을 아는 方式 가운데서 손 쉬운 方法은 그 事物을 客觀化해 보는 일이다. 그러나 immediate experience를 客觀化해 볼 때 이미 그것은 immediate experience가 아닌 것이다. 다만 우리가 強調해야 하는 點은, immediate experience에 關한 知識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認定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事實이다. 個體는 原初的인 全體의 所産이다. 엘리엇은 이 原初的인 全體(Original Unity)를 immediate experience라고 부른다. ② J. Hillis Miller는 immediate experience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Immediate experience is an” undistinguished unity,” “a sort of confusion.” Another name for-it is “feeling.” It is, in another phrase Eliot borrows from Bradley, “the general condition before distinctions and relations have been developed.” Though every term and relation emerges from immediate experience, that unity does not vanish in the entities which derive from it. It “remains at the bottom throughout as fundamental,” a “felt background” for every modification of experience.”^③

結局 immediate experience라는 것은 더 이상 分離될 수 없는 現在의 核인 것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감소할 수도 없고, 부가할 수도 없는 永遠한 現在로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이다. 時間과 空間을 초월한다. 모든 思考와 感覺에 先行되는 것이다. 따라서 自我라는 것은 모든 것의 基盤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外觀이요 幻影에 不遇한 것이 된다. 그

註 ① Thompson, Eric. T. S. Eliot—thd Metaphysical Perspectiv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Second Printing, 1965, pp. 29~30.

② Miller, J. Hillis, “T. S. Eliot” Poets of Re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5, p. 131.

③ Ibid., p. 131.

리고 온갖 여러 觀點도 相對的으로 볼 때에는 眞理이지만, 絕對的으로 볼 때에는 허위인 것이다. 왜냐하면 理想과 現實, 精神的인 것과 非精神的인 것, 積極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은 모두 外觀에 不過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immediate experience는 한 主體와 客體가 分化되는 根原的인 reality로서, 어떤 觀點에서 볼 때에는 主觀的이지만, 또 다른 觀點으로 볼 때에는 客觀的인 것일 뿐, 絕對的인 觀點이란 決코 있을 수 없다. 勿論 絕對的인 觀點이 形成되면, 그것이 곧 眞理로서 確立되겠지만, 絕對的인 觀點이 없는 以上 모든 것은 相對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絕對的이면서도, 相對的인 理由로 해서, 經驗은 곧 悞라독스인 것이다. 엘리엇은 F.H. Bradley의 哲學을 探求하는 가운데 이와같은 見解를 쌓아 올렸다. immediate experience는 reality가 unity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人間은 제자기 自己 意識이 구축해 놓은 相對的 經驗의 世界를 방황하면서, 이 根原的인 reality로 부터 벗어나가고 있다. 제 자기 고립되고, 密閉된 世界속에서 그들이 追求하는 길은 外觀 즉 幻影만을 쫓는 과정이기 쉽다. 이 點 絕對的인 觀點으로서의 immediate experience는 經驗할 수 없는 것이어서 人間條件의 悲哀가 여기서 부터 싹트는 것이다. 永遠한 現在의 中心에서 소외된 人間의 이 슬픔과 좌절과 절망은 엘리엇의 初期詩를 뚫고 지나는 중심 테마인 것이다.

“나는 곧 世界다”하는 主觀主義는 “너는 곧 世界”라는 또 하나의 主觀主義와 타협할 줄 모르는 알려상태를 낳는다. 이 嚴格한 主觀主義의 감옥 속에서는 <나>의 他世界에 對한 參與와 擴大가 거의 不可能하다. 이 <나>의 世界가 reality의 中心에서 부터 멀리 떨어진 幻影의 世界요, 極端的인 ego의 世界가 되어질 때, 無氣力하고 無意味한 人間이 탄생한다. 이들은 魂 불꽃의 中心이 God라는 질서로 表現될 때 그 中心에서 부터 떨어져 혼란속에서 그 주변 만을 맴도는 人間像이 되어진다. 우리는 그 代表的인 人間을 엘리엇의 詩 Gerontion 속에서 볼 수 있다.

III

1919년 發表된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속에서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nd he is not likely to know what is to be done unless he lives in what is not merely the present, but the present moment of the past, unless he is conscious, not of what is dead, but of what is already living.”

이와같은 엘리엇의 見解에 대해 Grover Smith는^④ 다음과 같이 解明하고 있다.

註 ④ Smith, Grover. T.S.Eliot's Poetry and Plays—A Study in Sources and Mean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hoenix Books, 1965, p. 54.

“And by 1919 he had formulated a theory concerning *tradition*: that a poet should be aware, and utilize his awareness, of both his own age and the past and of the past as a present reality. This theory was probably at bottom Bergsonian. But the persistent thematic contrast, the great debate between the spirit and the flesh, showed Eliot’s main preoccupation, with the idealist crushed alike by the ineffectuality of his idealism and by the feebleness of his capacity for the real.”

傳統의 흐름속에서 歷史의 現在로서 自己時代와 過去를 詩인이 意識해야만 한다는 것을 엘리엇은 強調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19년의 作品 *Gerontion* 속에서 엘리엇은 늙은이 *Gerontion* 을 통하여 精神的인 再生이 完全히 不可能한 不毛의 人間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詩作品은 엘리엇이 詩를 통하여 歷史感覺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表現한 것이기도 하다. 過去에 대한 追憶이 *Gerontion* 의 現在意識을 尙두리채 支配하고 있다. 그리하여 엘리엇은 이 意識을 現代人的 意識과 同一視하고자 한다. Smith 는 *Gerontion* 이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를 詩로 表現한 作品이라고 까지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데 一理있는 말이라 여겨진다.⁵ *Gerontion* 의 意識속에서 時間과 空間의 장벽은 完全히 除去되고 있다.

Gerontion 은 갑자기 기적처럼 생겨난 것은 아니다. *Gerontion* 에 앞서서 *Prufrock* 이 있었다. 아니, *Gerontion* 처럼 *Prufrock* 이 同時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Portrait of a Lady*” 속의 “I”가 또 있다. 이들은 모두 絶絶的인 經驗의 中心에서 소외된 幻影과 같은 人間像들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人間들은 엘리엇의 詩속에서 Bradley 의 哲學을 空氣처럼 마시고 있는 것이다.

Prufrock 는 世界로부터 고립된채 오로지 自己의 또 하나의 分身에게만 넋두리를 늘어 놓고 있다.

“Like a pathient etherised upon a table;”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에서 느낄 수 있는 無氣力 상태 속에서 *Prufrock* 는 삭막한 거리를 맴돌고만 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偉大한 情熱의 中心인 Michelangelo 는 存在했지만, 그는 行動이 없는 세월 속에서 그에 關한 부질 없는 넋두리 만을 늘어 놓을 뿐, 그 근처를 맴돌기만 한다.

And would it have been worth it, after all,
After the cups, the marmalade, the tea,
Among the porcelain, among some talk of you and me.
Would it have been worth while,
To have bitten off the matter with a smile,

註 ⑤ Ibid., p. 57.

To have squeezed the universe into a ball
 To roll it toward some overwhelming question,
 To say: 'I am Lazarus, come from the dead,
 Come back to tell you all, I shall tell you all'—
 If one, settling a pillow by her head,
 Should say: 'That is not what I meant at all.
 That is not it, at all.'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Overwhelming question'의 reality에서 벗어나서, 한 女人과의 의사소통 마저 끊어지는 이 슬픔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No! I am not Prince Hamlet, nor was meant to be;'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舞臺中心에서 햄릿처럼 主人公이 되지 못하고 그 주변만을 빙빙도는 단역으로만 끝나는 이 마비된 상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서로가 서로의 主觀的인 世界 속에서 윤택된채 한 걸음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탓이다. 서로가 서로의 世界속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J. Hillis Miller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이것을 說明하고 있다.^⑥

"Prufrock's paralysis follows naturally from this subjectivizing of everything. If each consciousness is an opaque sphere, then Prufrock has no hope of being understood by others. "No experience," says Bradley in a phrase Eliot quotes, "can lie open to inspection from outsid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Philosophy of F. H. Bradley)

Prufrock의 行動은 幻影속에서의 動作이지, 決코 그 經驗이 죽음으로 부터의 復活이라는 엄청난 문제의 中心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엘리엇이 主張하고 있는 절대적 경험의 哲學的인 意味는 個體의 中心이 擴大되어 모든 他의 觀點을 內包하는 것을 뜻할진대, Prufrock의 나약한 意志는 時間과 空間이 오로지 客觀化되지 않고 主觀的인 存在로만 동결된 까닭이다.

"Portrait of a Lady"에 나오는 "I"의 상황도 決局 Prufrock와 같은 경우가 된다.

'I am always sure that you understand my feelings, always sure that you feel, sure that across the gulf you reach your hand,

(Portrait of a Lady)

"I"는 상대방이 자기의 감정을 理解해 줄 수 있다고 確信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關係는 決코 密接한 사이로 發展되지 못했다. "I"와 "You"는 서로 단절된채 굳게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는 셈이 되었다.

'I have been wondering frequently of late (But our beginnings never know our ends!)

Why we have not developed into friends.'

(Portrait of a Lady)

Hyatt H. Waggoner는 이같은 人間愛情의 단절상황을 "spiritual darkness of the modern mind"

註 ⑥ Ibid., p. 139.

라고 했고, 詩人의 任務은 이 압담한 상황에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했다.^⑦ 그러나 Waggoner 가 엘리엇의 주요한 관심이 “the quest for salvation”^⑧에 있다고 하면서, 그 구제의 方法을 다음과 같이 提示했을 때 “經驗의 客觀化” 대목에 대해선 筆者는 意見を 달리한다. 오히려 “主觀化”라는 말로 바꿔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For the old self cannot be “saved” so long as it cannot love. And it cannot love so long as it *objectifies* all its experience. How can this self be reformed, redeemed? That question is the real subject of “Portrait of a Lady,”^⑨

다시 作品으로 돌아가자.

‘For everybody said so, all our friends,
They all were sure our feelings would relate so closely!
I myself can hardly understand.

We must leave it now to fate.

(Portrait of a Lady)

사랑은 失敗하고 希望은 消滅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自己도 그 理由를 알지 못하여 運命으로 체념하고 만다. 自己의 客觀化가 이루어지지 않는限, 그 斷絶의 意味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結局 이 두 人間의 個別的인 世界는 中心으로 하여 結合되는 方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엇의 作品 *Preludes*의 世界처럼 서로 허황되게 빙글 빙글 無意味하게 맴도는 生活인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Wipe your hand across your mouth, and laugh; The worlds revolve like ancient women

Gathering fuel in vacant lots.

(Preludes)

Prufrock 와 마찬가지로 “*Preludes*”의 世界도 깨지고, 不完全한 無秩序의 世界인 것이다. 다시 *Gerontion* 으로 돌아가자. 고립된 ego의 subjectivity는 他者와의 接合을 不可能하게 할 뿐만 아니라 最高의 질서이며 中心인 God에의 接近마저 이룩하지 못하게 한다. 歷史意識과 分散 고립된 人間과 宗教—하느님—의 喪失이, 그리하여 無意味하고 처절한 기다림의 時間이 *Gerontion*의 中心 主題를 이룬다고 본다 허나 *Gerontion*의 惡夢은 Prufrock 보담도, ‘*Portrait of a Lady*’의 ‘I’ 보담도, 더욱더 처절하여 엘리엇의 *The Waste Land*의 음산한 前奏曲을 이룬다. *Prufrock*를 희비극이라 한다면, *Gerontion*은 순수한 悲劇에 屬한다고 John Crowe Ransom^⑩은 말하고 있다. Ransom도 밝히고 있듯이^⑪ 엘리엇은 *Gerontion*을 *The Waste Land*

註 ⑦ Waggoner, Hyatt H. “Myth and Memory (T.S. Eliot), American Poets, from the Puritans to the Present, Houghton Mifflin Co. Boston, 1968, p. 414.

⑧ Ibid., p. 418.

⑨ Ibid., p. 418.

⑩ Ransom, John Crowe. “Gerontion”, T.S.Eliot—The Man and His Work, edited by Allen Tate. Delta Book. Delta Pub. Co. Inc., New York, 1966, p. 138.

⑪ Ibid., p. 138.

의 일부로서 썼지만 Ezra Pound가 이를 反對했다고 한다. 그 反對理由는 Ransom이 추측컨대는, *Gerontion* 만으로도 이미 5樂章을 갖고 있는 獨自的인 Symphony를 이루고 있는데, 구태여 *The Waste Land*에 追加시킬 必要는 없다는 것이었다.

詩의 方法으로서는 *The Waste Land*에서 利用되고 있는 stream-of-consciousness 技法이 이 詩에서 살려지고 있다. 한 사람의 作中人物이 自己의 思考의 흐름을 過去와 現在를 교차 시켜 가면서 詩의 內容으로 形成 展開시키고 있다. *Gerontion*은 人類歷史가 저지른 모든 罪惡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點에서, 그는 歷史 그 自體를 상징한다. Prufrock의 個人的이며, 內的인 갈등보다 그 苦惱는 훨씬 深遠하고, 그 幅도 훨씬 넓다. *Gerontion*의 집은 “a decayed house”인데, 이때의 “house”의 개념은 “the habitation, the family stock, the European family, the Mind of Europe, the body, finally the brain.”¹²로 까지 擴大되고 一般化 되어진다. *Gerontion*이 歐羅巴처럼 부패한다¹³고 할 때, 엘리엇이 強調한 歷史意識이 Prufrock의 경우 보다도 훨씬 두드러진다.

*Gerontion*이란 말의 뜻은 ‘a little old man’이란 뜻이다. epigraph는 Shakespeare의 *Measure for Measure* 3幕 1場에서 따 온 것이다. 이 속에서 공작은 승려로 가장하여 死刑宣告를 받은 Claudio에게 人生은 가질만 한 價値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epigraph을 檢討해 보자.

Thou hast nor youth nor age/But as it were an after dinner sleep/Dreaming of both.

여기서 ‘Thou’는 “an old man”인 *Gerontion*과 그 상황이 같다. ‘youth’와 ‘age’를 夢想만 하고 있다는 것은 *Gerontion*이 歷史의 中心 속에서 活氣에 넘친 人生을 살아 가지 않고, 오히려 고립되고, 소의 당한채 個體의 密室 속에서 appearance로서의 幻影의 人生을 좇고만 있다는 뜻과도 같다. 이點 epigraph는 作品全體의 意味를 解明하는데 있어서 어떤 方向을 提示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Gerontion*이 놓여 있는 상황이 매마른 季節에 ‘비를 기다리는’ 경우인 것을 暗示해 주고 있다. ‘비’는 여기서 ‘life-renewing’¹⁴이기 때문이다.

Here I am, an old man in a dry month,
Being read to by a boy, waiting for rain.
I was neither at the hot gates
Nor fought in the warm rain
Nor knee deep in the salt marsh, heaving a cutlass,
Bitten by flies, fought.
My house is a decayed house,

註 12 Kenner, Hugh. “Gerontion”, *The Invisible Poet*, The Citadel Press, New York, 1964, p. 125.

13 Ibid., p. 125.

14 Williamson, George “Gerontion”, *A Reader’s Guide to T. S. Eliot*, The Noonday Press, New York, 1957, pp. 106~107.

And the jew squats on the window sill, the owner,
 Spawned in some estaminet of Antwerp,
 Blistered in Bursseles, patched and peeled in London.
 The goat coughs at night in the field overhead;
 Rocks, moss, stonecrop, iron, merds.
 The woman keeps the kitchen, makes tea,
 Sneezes at evening, poking the peevish gutter.
 I an old man,
 A dull head among windy spaces.

詩 *Gerontion* 을 다섯 部分으로 나눌 때, 이 첫 부분은 16行으로써 다른 部分에 비해서는 약간 긴 편에 든다.

主人公 늙은이가 놓여있는 상황을 提示하고 있는 introduction 의 部分이다. 主人公 "I"는 old man 이라고 규정짓고 있으며, 2行의 'a boy'와 對照되어 있다. "I"는 'waiting for rain' 즉 매마른 季節에 「비를 기다리고 있다.」 現代라는 不毛의 매마른 季節에 우리가 'a boy'에서 느낄 수 있는 청신한 젊음과 결백의 새 生命을 비를 기다리듯 갈망하고 있다. 「비」는 *The Waste Land* 에서도 生命과 復活을 約束하는 Image 로 使用되고 있다. 3~6行까지는 2行에서의 'Being read to by a boy'에서 볼 수 있는 수동적인 態度를 다시 明白히 해 주는 것으로써 生의 中心舞臺에서 한번도 열렬히 싸운 적이 없었던 일을 回想하고 있다. Prufrock 처럼 이 主人公도 勇氣가 없는 人間인 것이다. 'hot gates'와 'the warm rain' 그리고 'heaving a cutlass'는 모두 英雄的인 鬪爭과 期約——'fought'에 集約되는 것으로써 막연히 「기다린다」는 主人公의 상황과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7行에서 우리는 또한번 새로운 introduction 에 直面하게 된다. 즉 *Gerontion* 의 집에 대한 定義가 내려지는 것이다. 그 집은 '부패한 집'이요, 집主人은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 9行~10行에 나온다. 안트워프의 어느 술집에서 태어나 '브뤼셀에서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런던에 와선 껍질이 벗겨져 반창고를 붙인' 그런 人間이다. '썩은 집'과 그집 主人이 病的인 人間이라는 事實은 歐羅巴는 썩었고, 그 主人은 病들었고, 그 住民은 無力해졌다는 이야기다. 유대인은 商人이요, 이 商人의 商去來의 行路는 Antwerp 와 Brussels 과 London 이 되어, 現代 物質文明과 黃金萬能時代의 慘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집'이 놓인 환경을 보자. (11行~12行) '바위, 이끼, 평의 비름, 쇠조각, 똥'이 깔린 들판인데다, '밤이면 山羊이 기침을' 하는 곳이다. 自然도 都市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病든 곳이다. 이런 別판을 이 主人公은 머리위(overhead)에 이고 바람이 이는 언덕 아래 (under a windy knob) 살고 있는 것이다. 거룩하고, 맑고, 神聖한 아무런 질서도 없다. 보이는 것은 오로지 病든 風景과, 썩은 집과,

타락한 집 主人과, 無氣力한 住民 뿐이다. 이런 環境을 더욱 더 惡化시키는 것은 女性의 性的 타락이다. The Waste Land에서 더욱 더 重要的 테마로서 表現되어지는 사랑이 없는 機械的인 習慣으로서의 肉體的 交섭의 病든 女性의 이미지가 시궁창(gutter)과 재채기(sneezes at evening)의 이미지로서 Gerontion 속에 導入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主人公은 늙은이가 되어 몽롱한 머리속에는 空虛한 바람만이 아무런 結實도 이루지 못하고 스산히 불고 있는 것이다. (15行~16行)

Signs are taken for wonders, 'We would see a sign!'
The word within a word, unable to speak a word,
Swaddled with darkness. In the juvescence of the year
Came Christ the tiger

In depraved May, dogwood and chestnut, flowering judas,
To be eaten, to be divided, to be drunk
Among whispers; by Mr. Silvero
With caressing hands, at Limoges
Who walked all night in the next room;
By Hakagawa, bowing among the Titians;
By Madame de Tornquist, in the dark room
Shifting the candles; Fraülein von Kulp
Who turned in the hall, one hand on the door. Vacant
shuttles
Weave the wind. I have no ghosts,
An old man in a draughty house
Under a windy knob.

이 두번째 部分은 17行으로써 아주 중요한 ideas가 가득찬 images로 충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theme을 導入하고 있다. "Signs, are taken for wonders. 'We would see a sign!'은 St. Matthew의 12章 38節과 Lancelot Andrews의 "Nativity Sermon"에 그 source가 있는데 St. Matthew에서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Then certain of the scribes and of the Pharisees answered, saying, Master, we would see a sign from thee.

바리새인들은 Christ에게 하느님의 기적을 증명하는 '표적'(sign)을 보고 싶다고 요구한다. 엘리엇이 Andrewes에 관한 글에서 注意를 환기 시킨 Lancelot Andrewes의 Nativity Sermon

은 다음과 같다.^⑤

Signs are taken for wonders. "Master, we would fain see a sign," that is a miracle. And in this sense it is a sign to wonder at. Indeed, every word here is a wonder... Verbum infans, the Word without a word; the eternal Word not able to speak a word; a word sure. And... Swaddled, a wonder too. He that takes the sea "and rolls it about with the swaddling bands of darkness";—He to come thus into clouts, Himself!

Andrews의 말을 바꾸어 "The word within a word, unable to speak a word"로서 表現하면서 엘리엇은 이것이 곧 'sign'인 것을 暗示하며, 이 'sign'은 곧 Christ를 뜻한다고 보려는 것이다. 말씀이 곧 Christ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의혹을 품고 'sign'을 要求했듯이 現代人도 깊은 회의에 젖어 神의 存在를 再確認하려 한다. 더욱이 이 말씀은 지금 어둠속에 싸여 (swaddled with darkness)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난 호랑이의 모습으로 (Came Christ the tiger) '표적'이 봄에 나타난다. The Waste Land에 있어서 '4월은 적없이 가혹한 달'이었다. 왜냐하면 4월은 죽음으로 부터의 復活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Gerontion에 나오는 호랑이로서의 Christ는 fear와 terror가 수반된 福音이다.

어두운 숲속에서 이글 이글 불타는 두 눈동자를 부릅뜨고 있는 Blake의 호랑이는 곧 現代의 暗黑상태 속에서 군림하는 怒한 神으로서의 체적을 한손에 든 Christ이다. 그러나 Blake의 tiger는 타락한 現代의 群衆(among whispers) 속에서 'to be eaten, to be divided, to be drunk'되어 그 權威와 威力의 빛을 지금 잃고 있다. 그 季節은 타락한 5월이다(depraved May). 이 5월의 부패와 官能的인 美를 'dogwood and chestnut, flowering judas'가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tiger로서의 Christ를 파멸시키는 4명의 人物은 現代를 상징하는 Mr. Silvero, Hakagawa, Madame de Tornquist, Fraülein von Kulp이다. 神의 中心에서 물러난 이 人物들 가운데서, Mr. Silvero는 藝術愛好家이지만은 藝術品の 精神的이며, 文化的 價値에는 온통 無關心한 가운데, 神經衰弱에 걸린 위인이다. (Who walked all night in the next room) 그리고 Titian의 그림 앞에서 마냥 허리를 굽히는 Hakagawa는 자기나라의 傳統文化的 眞價를 外面한 채, 他國의 文化앞에서 아양을 떨며, 모방을 일삼는 空虛한 人物이다. Madame de Tornquist는 確固不動한 信仰을 잃고 (shifting the candles) 어둠속에서 (in thd dark room) 방황하는 精神的 迷兒이다. von Kulp嬢은 방바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도 못하는(Who turned in the hall, one hand on the door) 不安속에서 方向感覺을 잃고 있다.

4인의 人物로 表現되는 이 世界人들의 幻影같은 人生은 모두 subjectivity의 감옥에 갇혀 서로 고독을 씌으며 제각기 단절되어 God의 中心으로 부터 멀리 떠나 그 주변만을 허황되게 맴

註 ⑤ Ibid., p. 108에서 再引用.

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Gerontion*의主人公과 더불어 아무런 結實도 없이 無意味한 生活을 타성처럼 계속하고 있을 따름이다(Vacant shuttles weave the wind). 主人公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의지해야 할 信仰이 없는 것이다(I have no ghosts).

After such knowledge, what forgiveness? Think now
 History has many cunning passages, contrived corridors
 And issues, deceives with whispering ambitions,
 Guides us by vanities. Think now
 She gives when our attention is distracted
 And what she gives with such supple confusions
 That the giving famishes the craving. Give too late
 What's not believed in, or is still believed,
 In memory only, reconsidered passion Gives too soon
 Into weak hands, what's thought can be dispensed with
 Till the refusal propagates a fear. Think
 Neither fear, nor courages saves us. Unnatural vices
 Are fractured by our heroism. Virtues
 Are forced upon us by our impudent crimes.
 These tears are shaken from the wrath-bearing tree

세째 部分은 15行으로써 the silent auditor에게 monologue가 주어진다. 첫 行에서 의문이 提起된다. 즉 이같이 암담한 Gerontion의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所望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點이다. 다시 말해서 知識과 宗教와의 關係를 究明하고자 한다. 이 의문에 대해서 세번의 命命文이 뒤 따른다. 여기서의 silent auditor는 Christ를 두고 말한다. 이 auditor는 이 詩의 넷째 部分에 이르러서는 “you”와 “your”로 확실히 表示된다.¹⁶ 2行에서 부터 11行까지는 Gerontion이 어찌서 Christ를 거역하게 되었는가 하는 理由를 明白히하고 있다. 즉 人間의 歷史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獨白을 늘어 놓는다. 그에 의하면 歷史는 “교활한 통로”(many cunning passage)이며, “책략된 회랑과 出口”(contrived corridors and issues)이며, “야망을 속삭이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허영으로 인도”(deceives with whispering ambitions, Guides us by vanities)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歷史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混亂의 길이다. 必要할 땐 주지 않고, 必要하지 않은 때 주는 모순을 歷史는 들어 내 놓고 있다.

註 16 Ransom, John Crowe. “Gerontion”, T. S. Eliot — The Man and His Work, edited by Allen Tate, p. 148.

歷史의 지식도 우리들의 精神이 方向感覺을 잃고 있을 때 주어지고, 그 知識이 너무 많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주면 줄수록 우리의 갈증은 더욱 심해진다. 永遠한 現在로서의 過去의 意味와 未來로 向할 수 있는 現在의 中心에 대한 洞察을 歷史는 提示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人間은 價値에 대한 信念을 喪失한다. 따라서 勇氣를 發揮할 理由도 없으며, 勇氣는 heroism 이라는 美名아래 'Unnatural vices' 만을 탄생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흘리는 것은 오로지 눈물에 지나지 않는다. 憤怒의 나무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 <나무>가 <知識>의 나무라고 한다면, 信仰이 없는 知識은 幻想에 지나지 않아 그 나무에 열리는 것은 'forgiveness'가 아니라 'wrath' 일 뿐이다. 그것은 "精神의 憤怒"^⑩이다. 神의 秩序를 떠나 표류하는 歷史의 탁류는 神의 憤怒를 사는 背反의 歷史다. 歐羅巴의 物質中心의 世俗的인 歷史는, Gerontion 의 人生과 意識으로 具體化되어, 永遠한 秩序의 中心에 이르지 못하는 悲劇을 그리고 있다. Gerontion 곧 歷史는 'the word within a word' 를 믿지도 못하고, 그 眞意를 發見하지도 못하는 좌절감과 絶望속에 놓여 있다.

The tiger springs in the new year. Us he devours. Think at last
 We have not reached conclusion, when I
 Stiffen in a rented house. Think at last
 I have not made this show purposelessly
 And it is not by any concitation
 Of the backward devils!
 I would meet you upon this honestly.
 I that was near your heart was removed thereform
 To lose beauty in terrors, terrors in inquisition.
 I have lost my passion: why should I need to keep it.
 Since what is kept must be adulterated?
 I have lost my sight, smell, hearing, taste and touch:
 How should I use them for your closer contact?

이 13행의 넷째 部分은 Gerontion 이 'The word'를 自己人生의 中心으로 맞아들이지 않을 때
 할 때 'the redeemer' (In the juvescence of the year / Came Christ the tiger) 였던 '存在'가 지금은
 'avenger' (The tiger springs in the new year. Us he devours.)가 된다는 것을 첫 대목에 내세우
 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두행에서 그는 'The word'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 이 詩의 두번째
 部分에서 'Christ the tiger'는 世俗的 人間들에 依하여 잡아 먹히고 말지만은, 여기서는 <우리

註 ⑩ Williamson, George. "Gerontion", A Readers Guide to T. S. Eliot. The Noonday Press, New York, 1957, p. 110.

들>을 反對로 잡아 먹는다. 歷史가 永遠한 神의 秩序를 받아 들이지 않을 때, 그 歷史는 神의 憤怒를 사서 파괴당하고 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Gerontion 은 Christ 인 'You'에게 다시 자기 立場을 밝혀 두고 있다. 이 <셋집 (a rented house)>에서 無氣力과 노령속에서 感覺과 意識이 <굳어져 (stiffen)> 있는 限 마지막 信仰의 結論에 到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We have not reached conclusion.) 이때의 結論이란 勿論 'What forgiveness?'에 關한 것이다. Gerontion의 이와 같은 'show'는 決코 그를 선동하여 타락시킨 惡靈(the backward devils)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誠實하고 正直한 態度에서 하는 것임을 明白히 해 두고 있다. Gerontion 의 이런 변명에는 Christ 에 대한 相當한 敵對感이 도사리고 있다.

그도 한때 Christ 에 가까이 있었다는 事實을 Gerontion 은 告白하고 있다. (I that was near your heart was removed therefrom.)이 대목도 Gerontion 을 歐羅巴文明의 Personification 으로 볼 때, 한때 神을 中心으로 했던 歐羅巴의 歷史는 지금 그 中心으로 부터 떨어져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結果 Gerontion 은 美(beauty)를 喪失한다. 그 美는 Christ 의 美요, 眞正한 文化의 美요, 歷史가 궁극적으로 志向하는 美다. 그러나 美는 世俗化된 歷史의 混亂이 빛어 낸 공포(terror) 속에서 간 곳이 없고, 憤怒에 찬 Christ 의 서슬이 파란 審問(inquisition)의 공포속에서 빛을 잃고 있다. Gerontion 은 Christ 의 受難이 보여주는 그 勇氣와 情熱이 없는 탓으로 美에 접근할 수가 없다. 더욱이나 그는 Passion 을 지닐 理由를 알지 못한다. (Why should I need to keep it?) 그 Passion 을 간직한다 하더라도 Gerontion 은 神의 中心에서 이탈된 以上 俗化되는 運命을 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五官의 機能마저 마비된 無氣力과 無反應의 精神的 高갈상태에 빠져 있어 Christ 로 접근할 수 있도록 五官을 적절히 使用할 수도 없는 딱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는 時間의 風化作用속에서 모든 生命이 파괴되어 죽음의 暗黑과 공포속에서 敗北者의 넋두리를 늘어 놓고 있을 뿐이다.

These with a thousand small deliberations
 Protract the profit of their chilled delirium,
 Excite the memberane, when the sense has cooled,
 With pungent souces, multiply variety
 In a wilderness of mirrors. What with the spider do,
 Suspend its operations, will the weevil
 Delay? De Bailhache, Fresca, Mrs. Cammel, whirled
 Beyond the circuit of the shuddering Bear
 In fractured atoms. Gull against the wind, in the windy straits.
 Of Belle Isle, or running on the Horn,

White feathers in the snow, the Gulf claims,
 And an old man driven by the Trades
 To a sleepy corner.
 Tenants of the house,
 Thoughts of a dry brain in a dry season.

以上 15행이 詩 *Gerontion*의 마지막 부분을 이룬다. 죽음과 파멸, 적극적인 투쟁의 人生과 소극적인 수동적 人生, 자연과 인간, 과거와 미래가 대조를 이루면서 主題를 形成한다. 싸늘한 狂亂(chilled delirium)과 “감각이 식었을 때”(when the sense has cooled)는 *Gerontion*의 精神狀態를 말하고 있다. 그는 보잘 것 없는 작은 늙은이로서 ‘사소한 걱정거리’(a thousand small deliberations)가 限없이 많다. 그리하여 自己 나뉠대로의 利益을 如前히 追求하고 있다. 늙어서 피부는 말라 비틀어져 얇아졌지만, 人爲的인 강렬한 자극으로써 마비된 感覺을 다시 끈두세워(Excite the membrane / With pungent sauces) 自己를 비쳐주는 過去의 스산한 거울(In a wilderness of mirrors) 속에서, 영원한 질서의 中心에서 破片이 되어 擴散된 自身의 虛像만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分明 *Gerontion*의 death-in-life의 모습이었지만 그도 어쩔 도리가 없다. The spider 나 the weevil 와 같은 더럽고 사소한 벌레도 제각기 자기 나뉠대로 해야 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中斷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벌레들에게는 순간 순간의 慾求의 充足만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지, 過去와 未來가 現在의 時點에서 불꽃을 튀기는 歷史意識이 없고, 傳統과의 精神의 유대감이라든가,¹⁸ 뚜렷한 目的意識이 없다. 이 늙은이처럼 그 存在는 다만 幻影일 따름이다. 그것은 마치 ‘부서진 原子’(fractured atoms)가 되어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며 괴도를 벗어나서, (beyond the circuit of the shuddering Bear) 物質文明이라는 世俗의 歷史의 幻影만을 뒤 쫓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現代의 迷兒들—De Bailhache, Fresca, Mrs. Cammel의 破滅과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바람이 부는 해협에서 갈매기 한마리가 바람과 싸우며 날다 죽는다. 暗黑의 深淵(the gulf)속에서 gull은 現代社會의 不安과 회의의 바람(the wind)과 맞서서 對決하다 깨긋한 죽음을 (white feathers in the snow) 스스로 選擇하는 것이지만, 이 늙은이는 利益과 打算만을 生의 基準으로 삼는 commercialism에 壓倒 當한채,¹⁹ (And an old man driven by the Trades) 無力하게도 줄음이 오는 人生의 구석바지에 쫓기고 있다. 그리하여 이 늙은이를 포함한 歐羅巴의 住民들은 (Tenants of the house) 매마른 現代의 不毛地에서 生命력이 고갈된 思考의 나날을 (a dry brain in a dry season) 허황되게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 부터의 復活을 約束하는 信仰의 活力素로서의 ‘비’가 앞으로 내릴 것을 기다리고 있다. (waiting for rain)

註 18 Ransom, John Crowe. “Gerontion”, p. 157.

19 Williamson, George. “Gerontion”, p. 112.

IV

엘리엇은 藝術의 効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²⁰

“For it is ultimately the function of art, in imposing a credible order upon ordinary reality, and thereby eliciting some perception of an order in reality, to bring us to a condition of serenity, stillness, and reconciliation; and then leave us, as Virgil left Dante, to proceed toward a region where that guide can avail us no farther.”

reality에 order를 줌으로써 condition of serenity, stillness, and reconciliation에 到達케 한다는 것이 藝術의 重要な 効用性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reality에 order를 부여하는 것은 藝術的 完成(artistic stillness)을 도모하는데 意味가 있는 것이지만, 이 作業은 여기서 그 限界點에 이르는 것으로써, 이 藝術的 効用이 궁극적으로 志向하는 것은 宗教的 完成(divine stillness)라 한 영역이 된다. “to proceed toward a region where that guide can avail us no farther.”의 뜻이 여기에 있다. 時間속에서의 有限的인 存在은 언제나 不安定하고 不安하다. 그것은 永遠한 時間속에서 一時的인 存在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最終的인 崩괴를 直面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時間上의 存續은 곧 混亂이다. 藝術作品이 지니고 있는 內在的인 秩序를 통해 混亂된 reality에 질서가 부여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상태를 藝術的 完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그 藝術은 수단이지 어떤 目的이 될 수 없다. 이 目的의 完成은 藝術의 영역 바깥에 있는 無限의 영역이 된다. 時間을 초월하고, 죽음을 拒否하는 이 상태에 이르는 길은 엘리엇에 關한 限 宗教的 完成에서 엿볼 수 있다. 知識과 經驗의 意味를 哲學的으로 探求한 엘리엇이 藝術的 完成의 길을 方法論的으로 究明하고자 努力하여 詩作品속에서 이를 具體化 시켰지만, 엘리엇의 念願은 宗教를 통한 救濟의 可能性을 提示하려는데 있었다. 이 같은 念願의 達成이 宗教的 完成이라는 말로 表現할 수 있다면, 藝術的 完成과 宗教的 完成은 그의 詩作品 속에서 不可分의 關係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Gerontion의 主人公 늙은이에 있어서 人生은 다만 幻影에 지나지 않는다. 中心을 잃고 混亂속에서 빠진 現代社會 속에서, 他人과의 精神的 交流가 斷絶된 人間이다. 歷史속에서의 勇감한 對決을 한번도 맛보지 못한 채 항상 不安定한 상태속에서 떨고 있는 늙은이다. 物質文明의 무역품에 휘말려, 끝내 Christ에의 접근을 포기하고 유랑하고 있는 人間이다.

그의 生活은 곧 混亂 그 自體이다. 이 混亂속에서 그는 죽어가고 있다. 이 孤立된 人間の 混亂狀態를 藝術的 完成을 통하여 질서정연하게 들어내 보이면서, 宗教的 完成을 통한 救濟의 길을 暗示하려는 것이 엘리엇의 意圖라고 생각 되어진다. 이 主人公의 主觀的인 ego의 世

註 20 Eliot, T. S. Eliot. On Poetry and Poets, New York Farror, Straus and Cudahy, 1957, p. 94.

界는 'Christ the tiger'라는 客觀的인 存在와 世界에의 意識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비로소 不安해진다. 이 늑은이의 主觀的인 意識이 客觀的인 存在와의 直接的인 交流가 斷絶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主觀的인 存在는 'Christ the tiger'가 엄연히 存在한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經驗에 混亂이 오는 것이다. 時間 바깥의 절대적인 存在를 응시하면서도 時間안에서의 主觀的 自我가 自己의 中心에서부터 벗어나려는 努力을 포기하여 再次 自己 안의 ego의 世界로 沒入할 때, 우리는 아무런 經驗의 完成과 秩序의 形成을 期約할 수 없다. 이 때 人間의 存在는 不一致와 混亂의 연속이 될 따름이다.

歷史 안에서의 神, 時間속에서의 無限이라는 根源的인 reality는 곧 永遠한 現在의 中心인데, 이 中心에서 벗어나고, 소외된 *Gerontion*의 主人公을 엘리엇은 混亂된 經驗에 대한 秩序의 부여라는 角度에서 면밀히 檢討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곧 엘리엇이 '不信의 時代에 있어서의 哲學的 詩人'이었기 때문에 可能했던 업적이었다.